

학업성취도 향상 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황 매 향 †

경인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업과정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을 받는 시간, 개인공부시간이 자신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한국청소년패널 1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3,449명과 고등학교 1학년 3,125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로 첫째,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수강시간, 개인공부시간의 학교 성적 향상 효과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과 4점 사이의 평균을 보이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 개인공부, 학교수업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수강시간, 개인공부시간에 따라 각각의 학교성적 향상효과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수강시간, 개인공부시간 각각과 학교성적 향상효과에 대한 지각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학교수업, 개인공부, 사교육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수강시간과 학교성적 향상효과와의 지각과는 상관계수가 .12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실제 학업성취도와 상관계수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학교수업이 개인공부보다 학교 성적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제어: 학교공부, 사교육, 개인공부시간, 학업성취도, 중등교육

* 이 연구는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황매향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대길 45 Tel: (032) 540-1498 / E-mail: maehyang@ginue.ac.kr

학업수행은 학생들의 주요한 발달과업이고, 학업수행의 결과 즉 학업성취도는 학교적응의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학생 자신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관심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먼저, 오성삼과 구병두(1999)는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중 학업성취와 관련된 논문이 813편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오성삼과 구병두는 813편을 수집하여 이들 가운데 메타분석이 가능한 587편의 논문을 그 내용에 따라 가정변인, 학교변인, 교사변인, 학생변인, 교수-학습변인 등 5개 변인군으로 분류하여 통합연구 방법으로서의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가장 큰 효과크기를 지닌 변인군은 교수-학습변인군($e.s.=.69$)이었으며 다음으로 학생변인군($e.s.=.47$), 교사변인군($e.s.=.42$), 가정변인군($e.s.=.33$), 학교관련 변인군($e.s.=.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각 변인군들 속에 포함된 세부 변인들로는 메타인지($e.s.=1.84$), 학생의 기대지각(1.24), 지능($e.s.=1.11$), 교사의 직무만족($e.s.=1.06$) 등이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를 리뷰한 Arbona(2000)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업성취 결정요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전통적으로 지능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대한 최근 연구(김미란, 2005)에서도 학

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선수학습, 기억력, 추론능력, 학교일반 자아개념, 지적흥미조작, 독해력, 자율성 보장, 교과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인지적 특성이고, 인지적 특성 중에서도 선수학습의 결정력이 가장 높았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개별 변인과 학교성적과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음을 비판한 이해명(1998, 2001)은 학업성적의 결정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의 순이 지능(.67), 노력(.60), 가정환경(.31), 사회환경(.29), 학교환경(.19)과 과외(.19) 등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조금 다른데, 지능(.73), 학교환경(.57), 노력(.49), 사회환경(.37), 가정환경(.31), 과외(.2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리고 그 상대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밝히는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업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신의 학업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 결정 요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학업수행 및 학업수행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학업성취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학업에서의 실패 및 성공에 대한 귀인에 관한 연구들이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 귀속에 관한 귀인이론은 Heider(1958)에서 시작되었는데,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진다. Heider(1958)와 Rotter(1966)의 통제소재 이론에 Weiner(1974)는 안정성 차원을 추가하고 나아가 통제가능성의 차원을 추가하였다. Weiner는 귀인이론을 교육의 장에 적용하였고, 주로 학업성취 행동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해 온 학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주로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의 네 가지 원인으로 설명한다. 귀인이론에서는 학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후속되는 학업적 노력, 정서적 경험, 미래 학습에 대한 기대수준 등이 달라진다고 본다. 즉, 학생들이 학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안정적 요인보다는 불안정적 요인에, 통제불가능 요인보다는 통제 가능한 요인에 귀인시킬 때 학습동기가 증진된다(이성진, 1996).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의 향상이나 저하에 대해 “노력”에 귀인하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학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노력에 귀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업에서 보다 높은 성취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크게 학교수업, 사교육, 개인공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

구를 받고 있다. 최근 사교육 시장의 양적 팽창으로 학교수업에 소홀해 지고 개인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상경아, 2005)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최상근 외, 2003).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공부, 사교육, 개인공부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노력이 성적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지, 나아가 실제 학업성취도와는 얼마나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학교수업, 사교육, 개인공부가 각각 학업성취도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시간, 개인공부 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시간, 개인공부 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조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와 3차년도에 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2학

년 3,449명(남학생 1,725명(50.5%), 여학생 1,724명(50.0%))과 고등학교 1학년 3,125명(남학생 1572명(50.3%), 여학생 1553명(49.7%))이 포함되었다.

조사도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제작한 설문지 문항 가운데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19번 문항의 응답내용,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20번 문항의 응답내용, 개인공부시간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21번 문항의 응답내용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17번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 중 학급석차 백분위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중학교 패널연구(2003-2008년)의 1차년도 조사자료와 3차년도 조사자료로서 자료수집은 2003년과 2005년 10월~12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

가. 학교수업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중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열심히

히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열심히 한 편이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3.03~3.47 사이로 나타났다(표 1). 즉, ‘보통’에서 ‘열심히 한 편이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학교수업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1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었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3.05~3.35 사이로 나타났다(표 1). 즉,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표 1. 학교수업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중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국어	3449	3.27	.93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영어	3449	3.21	1.08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수학	3449	3.29	1.10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회영역	3449	3.35	1.06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과학영역	3449	3.36	1.05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음악	3449	3.03	1.02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미술	3449	3.07	1.03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체육	3449	3.47	1.07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국어	3449	3.35	.92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영어	3449	3.14	1.09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수학	3449	3.24	1.11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사회영역	3449	3.27	1.08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과학영역	3449	3.29	1.07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음악	3449	3.05	1.06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미술	3449	3.09	1.03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체육	3449	3.35	1.09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에 대한 응답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와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는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와 현재의 성적과 모두 정적 상관관

표 2. 학교수업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의 관계(중학생)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성적향상 효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음악	미술	체육	반 등수 비율
국어	.507	.246	.191	.232	.228	.173	.202	.134	.247
영어	.257	.585	.306	.257	.260	.165	.178	.104	.381
수학	.235	.333	.573	.263	.336	.194	.175	.112	.379
사회영역	.256	.274	.227	.593	.320	.133	.177	.125	.399
과학영역	.272	.283	.318	.347	.622	.188	.202	.141	.400
음악	.147	.134	.130	.141	.204	.553	.297	.170	.193
미술	.204	.169	.119	.149	.184	.312	.532	.208	.183
체육	.111	.068	.083	.085	.124	.179	.187	.528	.036

계를 보이고 있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와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의 상관계수는 각 교과별로 .51~.6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과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04~.40 사이에 분포하고 예체능 과목 성적과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고, 학교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학교 성적도 더 높았다.

나.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중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 어떤 형태로 받은 것이든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 2/3 정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각 과목의 평균이 2.60~4.09시간 사이로 나타났다(표 3). 영어와 수학에서 각각 평균 4시간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다음으로 국어, 과학, 사회 순이었다.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

혀 효과가 없었다’(1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었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3.47~3.77 사이로 나타났다(표 3). 즉,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표 3.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중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국어	2090	3.07	1.67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영어	2614	4.09	2.36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수학	2652	4.06	2.38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사회영역	1744	2.60	1.55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과학영역	2151	2.96	1.58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음악	357	2.29	1.97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미술	358	2.30	1.99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체육	261	2.18	1.96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국어	2121	3.60	.85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영어	2629	3.63	.98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수학	2670	3.77	.96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사회영역	1774	3.47	.99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과학영역	2168	3.64	.94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음악	373	3.33	1.07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미술	338	3.32	1.04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체육	270	3.40	1.04

표 4. 사교육 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의 관계(중학생)

성적향상 효과 사교육 시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음악	미술	체육	반 등수 비율
국어	.064	-.004	-.025	.033	-.025	.022	.027	.054	-.013
영어	.080	.117	.089	.076	.068	.060	.006	.015	.163
수학	.096	.074	.107	.079	.050	.030	.007	-.080	.108
사회영역	.005	-.012	-.060	.055	-.004	-.007	-.015	-.073	-.043
과학영역	.037	.010	.021	.041	.065	-.090	-.035	-.100	.067
음악	-.005	.002	-.032	.052	-.051	.218	.234	.110	.060
미술	-.009	.002	-.032	.047	-.054	.218	.143	.120	.059
체육	.039	.021	-.007	.002	-.045	.057	.062	.182	-.066

사교육 수강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와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육 시간은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와 현재의 성적과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 수강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의 상관계수는 예체능을 제외한 주요교과의 경우 교과별로 .06~.1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적과의 상관계수 역시 .01~.16로 낮은 편이다. 사교육을 많이 수강한 학생들과 적게 수강한 학생들이 모두 사교육이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유사하고, 학교 성적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중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이나 학원/과외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교과의 경우 일주일 기준 개인공부시간의 각 교과 평균이 1.43~1.93 시간으로 나타났고, 예체능 과목의 경우 .60~.68로 나타났다(표 5). 영어와 수학이 일주일에 2시간 내외로 개인공부시간이 가장 많은 과목이었고, 다음으로 과학, 사회,

국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공부시간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1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었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3.22~3.46 사이로 나타났다(표 5). 즉,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표 5.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중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국어	3369	1.43	1.56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영어	3369	1.91	2.21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수학	3369	1.93	2.10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사회영역	3369	1.53	1.77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과학영역	3369	1.56	1.73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음악	3369	.66	1.09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미술	3369	.60	1.03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체육	3369	.68	1.29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국어	2435	3.34	.84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영어	2624	3.37	.97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수학	2644	3.44	.97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사회영역	2381	3.46	.96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과학영역	2457	3.43	.95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음악	1456	3.23	1.00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미술	1364	3.22	1.00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체육	1377	3.45	.99

표 6.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의 관계(중학생)

성적향상 효과 개인 공부 시간	성적향상 효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음악	미술	체육	반 등수 비율
국어	.214	.071	.072	.103	.113	.011	.057	.011	.073
영어	.140	.276	.181	.126	.137	.045	.054	-.009	.186
수학	.150	.179	.261	.116	.132	.059	.086	.010	.166
사회영역	.166	.091	.090	.227	.144	.020	.127	.039	.142
과학영역	.204	.124	.142	.167	.244	.049	.113	.023	.165
음악	.057	-.009	-.024	-.008	-.016	.214	.121	.042	.005
미술	.059	-.029	-.049	.003	-.018	.005	.185	.018	.012
체육	.019	-.032	-.042	-.018	-.014	.039	.060	.169	.065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한 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와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공부시간은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와 현재의 성적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개인공부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의 상관계수는 주요교과의 경우 각 교과별로 .21~.2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주요교과의 경우 .07~.19 사이에 분포하고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개인공부시간이 긴 학생들이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실제 성적이 더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

가. 학교수업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고등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열심히 한 편이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2.94~3.31 사이로 나타났다(표 7). 즉, ‘보통’에서 ‘열심히 한 편이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학교수업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1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었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3.01~3.25 사이로 나타났다(표 7). 즉,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표 7. 학교수업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고등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국어	3087	3.31	.96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영어	3086	3.31	1.02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수학	3087	3.21	1.16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회영역	3076	3.25	.97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과학영역	3050	3.21	1.03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음악	3063	2.94	1.01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미술	3058	2.96	1.01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체육	3081	3.20	1.07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국어	3082	3.24	.91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영어	3082	3.19	.98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수학	3077	3.04	1.08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사회영역	3069	3.25	.95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과학영역	3042	3.17	.99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음악	3055	3.01	.98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미술	3054	3.01	.97
(학교수업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체육	3077	3.19	1.03

표 8. 학교수업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의 관계(고등학생)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성적향상 효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음악	미술	체육	반 등수 비율
국어	.531	.260	.200	.332	.260	.166	.183	.124	.278	
영어	.276	.560	.252	.259	.231	.191	.162	.119	.346	
수학	.225	.266	.576	.203	.311	.115	.091	.063	.344	
사회영역	.299	.244	.164	.558	.264	.167	.161	.140	.253	
과학영역	.264	.253	.337	.298	.608	.152	.176	.128	.314	
음악	.112	.148	.100	.136	.129	.530	.344	.269	.056	
미술	.116	.122	.093	.147	.130	.368	.513	.243	.055	
체육	.066	.092	.069	.130	.098	.246	.213	.521	.004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에 대한 응답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와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는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와 현재의 성적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와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의 상관계수는 각 교과별로 .51~.61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과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예체능 과목의 성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25~.35 사이에 분포하고 예체능 과목 성적과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고, 학교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예체능 이외 과목의 성적도 더 높았다.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 어떤 형태로 받은 것이든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영어와 수학은 1/2 정도의 학생들이, 나머지 과목은 1/4정도, 예체능은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이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각 과목의 평균이 2.56~4.03시간 사이로 나타났다(표 9). 영어와 수학이 각각 평균 4시간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다음으로 국어, 과학, 사회 순이었다.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1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었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3.43~3.63 사이로 나타났다(표 9). 즉,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나.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고등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원을 다니거나

표 9. 사교육과 성적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
(고등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국어	937	3.26	1.86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영어	1413	3.74	2.18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수학	1590	4.03	2.45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사회영역	456	2.56	1.93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과학영역	741	2.88	1.86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음악	65	4.28	6.75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미술	74	6.53	6.57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 체육	61	4.70	5.63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국어	925	3.62	.79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영어	1399	3.57	.87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수학	1574	3.63	.94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사회영역	451	3.43	.89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과학영역	729	3.59	.88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음악	66	3.85	.93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미술	74	3.86	.90
(사교육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체육	60	3.83	.96

사교육 수강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와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육 시간은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와 현재의 성적과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 수강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의 상관계

수는 예체능을 제외한 주요교과외의 경우 교과별로 .02~.1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적과의 상관계수 역시 .00~.18로 낮은 편이다. 사교육을 많이 수강한 학생들과 적게 수강한 학생들 모두 사교육이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유사하고, 학교 성적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고등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이나 학원/과외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교과의 경우 일주일 기준 개인공부시간의 각 교과평균이 1.13~2.84 시간으로 나타났고 예체능 과목의 경우 .30~.31로 나타났다(표 11). 수학을 3시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가장 개인공부시간이 가장 많은 과목이었고, 다음으로 영어, 국어, 과학, 사회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공부시간이 학생의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1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었다’(5점) 사이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3.21~3.41 사이로 나타났다(표 11). 즉,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응답하였다.

표 10. 사교육 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의 관계(고등학생)

사교육 시간	성적향상 효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	반 등수비율
국어	.019	.004	-.003	-.049	-.062	-.002	.198	.178	.011
영어	.040	.053	.026	-.047	-.046	.028	.115	.178	.075
수학	.008	.036	.100	-.030	-.016	.156	.217	.187	.009
사회영역	-.051	-.038	-.071	.031	-.052	.057	.157	-.089	-.005
과학영역	-.069	-.011	.007	-.042	.022	-.169	-.021	.000	-.014
음악	.102	.136	.147	.183	.199	.304	-.024	-.097	.101
미술	.133	.206	-.023	.006	-.098	.153	.274	-.345	-.052
체육	.445	.299	.157	.289	.202	.321	-.182	.315	.062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한 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와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공부시간은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와 현재의 성적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개인공부시간과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의 상관계수는 주요교과의 경우 각 교과별로 .21~.3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주요교과의 경우 .08~.21 사이에 분포하고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즉, 개인공부시간이 긴 학생들이 학교수업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고, 실제 개인공부시간이 긴 과목인 수학의 경우 개인공부시간이 길수록 성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대한 지각(고등학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국어	3123	1.80	2.29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영어	3123	2.38	2.98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수학	3123	2.84	3.54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사회영역	3122	1.16	1.77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과학영역	3123	1.32	1.96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음악	3123	.30	1.21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미술	3123	.31	1.30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 체육	3122	.30	1.32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국어	2350	3.35	.81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영어	2489	3.41	.88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수학	2504	3.37	.98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사회영역	1938	3.32	.87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과학영역	1991	3.33	.89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음악	838	3.21	.92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미술	826	3.23	.91
(개인공부시간의 성적향상 효과여부) 체육	821	3.28	.94

표 12. 개인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지각의 관계(고등학생)

개인공부시간 \ 성적향상 효과	성적향상 효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	반등수비율
국어	.239	.126	.092	.143	.149	.002	.019	.026	.134
영어	.173	.250	.149	.116	.151	.037	.040	.024	.188
수학	.171	.166	.278	.101	.200	-.004	-.008	.002	.216
사회영역	.115	.084	.021	.218	.078	-.024	.019	.034	.076
과학영역	.106	.096	.141	.094	.298	-.022	.016	.037	.133
음악	.023	.003	.000	-.003	-.009	.177	.023	.066	.012
미술	.039	-.0205	-.054	.023	-.021	.004	.209	.064	-.006
체육	-.013	-.025	-.045	-.027	-.030	.015	.012	.142	-.030

논 의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경향성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하다. 먼저,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수강시간, 개인공부시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의 평균이 '보통'에서 '열심히 한 편이다' 사이에 있다. 사교육 수강여부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일주일 평균 수강시간은 예체능을 제외한 주요교과 의 경우 2.6~4.1시간으로 중·고생에서 유사했다. 개인공부시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 과목별로 일주일 평균 2시간 내외로 비슷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과 영어에 집중하여 개인공부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교육 수강시간의 경우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으로 개인공부시간의 평균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공부보다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수강시간, 개인공부시간이 학교성적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성적 향상효과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과 4점 사이의 평균을 보이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 개인공부, 학교수업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주요교과의 성적 향상효과에 대한 지각의 평균을 보면, 사교육이 3.43~3.77, 개인공부가 3.32~3.46, 학교수업이 3.04~3.35로 나타났고,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실

제 사교육, 개인공부, 학교수업 순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사교육이 학교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강무섭, 1992; 강인원·전성일, 2003; 김영화 외, 2000; 이해명, 1998; 최인선, 2000)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수강시간, 개인공부시간에 따라 각각의 학교성적 향상효과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사교육 수강시간, 개인공부시간 각각과 학교성적 향상효과에 대한 지각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학교수업, 개인공부, 사교육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수강시간과 학교성적 향상효과의 지각과는 그 관계가 낮았다. 주요교과의 경우 학교수업과의 상관은 .51~.62, 개인공부는 .21~.30, 사교육은 .02~.12로 나타나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일수록, 개인공부시간이 긴 학생들일수록 학교수업과 개인공부시간이 학교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실제 학업성취도와 의 상관분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학교수업이 개인공부보다 학교 성적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교수업과 개인공부는 학생들 스스로 노력을 더 기울이는 만큼 그것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가 실제 더 높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교육의 경우, 사교육 자체가 학교수업이나 개인공부보다 학업성취도 향상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면서도,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 효과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또한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성적이 더 높은 것도 아니다. 사교육의 급성장 속에서도 학교수업과 개인공부를 충실히 하는 학생들일수록 학교수업과 개인공부의 성적 향상효과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귀인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맹신은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 당사자들보다는 학부모들에 의해 강화되어 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강무섭(1992). 입시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 (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인원, 전성일(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4(1), 141-157.

김미란(2005). 초등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및 학습지원 가정환경과 학업성취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26, 67-97. 대전: 충남대학교.

김영화, 김정원, 류방관, 윤종혁(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상경아(2005). 고등학생의 과외 효과에 관한 연구: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성삼, 구병두(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4), 99-122.

이성진(1996). 교육심리학 서설(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이해명(1998). 중·고등 학생의 학업성적 결정 구조. 서울: 교육과학사.

이해명 (2001). 학업성적 결정이론.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최상근, 김양분, 유한구, 김현진, 이희숙(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규모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인선(2000). 보약과 과외: 과열 과외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도 제2차 교육정책 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rbona, C. (2000).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aged children: Precursors to career develop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270-309). New York: John Wiley & Sons.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problems*. New York: John Wiley & Sons.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8, 1-28.

Weiner, B. (1974). *Achievement 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게재 승인: 2008년 9월 27일

Korean Students' Attribu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Mea-Hyang Hwa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rocess. The data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in 2003 and 2005 were analysed for this study. The sample consisted of 3,449 jounior-high school students and 3,125 high school students. Students reported the effects of class participation, private tutoring, and studying by oneself were almost same level. But the correlations of students' effort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were different across the activities. Studying by oneself was regarded more effective by the students who took more efforts to participate at the class.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class participation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st.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adolescence, class participation, private tutoring, time allocation